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인요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06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9. 19.

발 의 자 : 인요한·성일종·구자근
장동혁·권영세·박준태
조승환·조정훈·권영진
최수진·우재준·김도읍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(이하 “난임치료휴가”라 한다)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,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함.

그런데,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배란유도나 체질개선 등의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하고, 시술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21일 이상의 치료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.

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, 유급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출생률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(안 제18조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인요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06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「근로기준법」”을 “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, 「근로기준법」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8조의2제1항”을 “제18조의2제1항, 제18조의3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“3일”을 “30일”로, “1일”을 “1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난임치료휴가 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3제1항 본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)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, 「 <u>근로기준법</u> 」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·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(이하 “출산전후휴가급여등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	제18조(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) ① ----- -----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, 「 <u>근로기준법</u> 」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<u>제18조의2제1항</u> 또는 「 <u>근로기준법</u> 」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.	② ----- ----- -----제18조의2제1항, 제18조의3----- ----- -----.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8조의3(난임치료휴가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(이하 “난임치료휴	제18조의3(난임치료휴가) ① ---- ----- ----- -----

<p>가”라 한다)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<u>3일</u>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, 이 경우 최초 <u>1일</u>은 유급으로 한다. 다만,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----- -----<u>30일</u>----- -----<u>10</u> <u>일</u>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--	--